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장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삶이 본격적으로 기록될 것 같지만, 이삭의 족보가 먼저 등장한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의 출생이 내용이 전부다. 이미 성경의 초점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 맞추어졌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욕심 세었더라 / 창세기 25:25-26

이삭의 기도, 리브가의 기도

이삭의 족보가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과정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훗날 이스라엘이 될 야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짧은 본문 안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 창세기 25:21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 남편 이삭이 기도한다. 간구하매, 들으셨으므로, 임신하였더니. 이게 끝이다. 단 한 구절에 간구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중간에 다른 사건도 없고 흔들림도 없다. 그렇다고 아이를 일찍 낳은 것도 아니다. 마흔에 결혼한 이삭이 욕심에 쌍둥이를 낳았으니 무려 이십 년을 기다렸다.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니다(아브라함은 이십오 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삭의 생애에는 ‘간구’와 ‘들으심’ 이외에 끼어들어 있는 다른 사건이 없다. 이삭의 기도는 참 끈질기고, 무던했다. 말하자면 순도 높은 것이었다.

리브가도 기도했다. 임신한 리브가의 배가 하루도 편치 않았나보다. 오죽하면 ‘태동이 심하다’도 아니고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고 했을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 남편에 그 아내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 창세기 25:22-23

조용한 사람 이삭

이삭의 삶은 조용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도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교하면 매우 짧다. 그나마 있는 기록도 묶이고, 주고, 속은 것이다. 조용하고 순한 사람 이삭이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의 기록에서 이미 그의 성품이 보인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목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 창세기 24:63

묶으면 묶이고 달라면 주고 속이면 속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삭은 평안을 누렸고 확실한 은혜를 받으며 살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좀 묶여주고, 좀 빼앗겨 주고, 좀 속아주자.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